



생산라인은 고유 영역에서 돌려져야 인간화를 기본으로 한 조직구성에 주력

이대길 /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다양한 공동 사업 추진으로 조합운영의 활성화와 경영기술 개발 및 경쟁력 제고에 모범이 되는 조합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총체적 경영을 4번이나 맡게 된 이대길 이사장은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혹시나 안 좋은 인식이 있을까 하여 지난해 보다 더욱 조합원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헌신의 모습은 조직의 능력화, 조사기능 강화, 정보 및 홍보사업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인간화 확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세부적인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해 그는 “96년 3월말 현재 184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 권익보호를 할 것인가에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구매사업과 공동판매사업이 있겠지요”라고 말한다.

즉 국내 골판지 생산업체인 (주)광신판지 외 11개의 대규모 판지업체와 골판지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국제 펄프의 가격변화 및 국내 자원재수급파동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자금지원에 따른 안정된 가격으로 적기에 소요 물량을 조합원사에게 공급하므로 경영안전을 이



▲ 이대길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룩했으며, 공동판매사업으로 연초(煙草)포장용, 인삼포장용 특수 골판지 상자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소요로 하는 골판지상자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통상산업부 배정 기준에 의한 전조합원 및 지역분포를 감안 수혜금 등 지원으로 92년부터 95년동안 168개 조합원사에게 총11,947백만원의 수혜를 줌으로써 영세 지함업체에 경영안정을

함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대길 이사장은 그린아웃 등 환경보호 단체와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신문지 수거함용 골판지상자를 개발해 조합원사에 환경의식을 배양시켰다.

중소지함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생적인 경제활동을 신장하고 경제적 향상을 기하여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은 이대길 이사장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합리적 경영으로 160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에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대길 이사장은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됐다는 의미는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헤쳐 나갈 관문이 많이 산재돼 있고, 조합을 위해, 조합원들을 위해 움직여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큰 규모의 골판지나 제지업체에서 우리 지합업종에 까지 발을 들여 놓는 게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수탈적 행위입니다.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 지합업계에 위기의식으로 다가옵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무한경쟁이라고 표현하지만 각 고유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라며 한편으로 안타까워 했다.

한국지합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이사, 그리고 노동 및 해외인력 분과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인식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올해에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식전환을 위해 ‘교육’을 잡고 있다. 조합의 권익 보호와 생산의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

교육이외에 조직확대사업으로 89년 84개 업체의 조합원을 시작으로 설립된 이래 그동안 지방에 산재한 지합업체의 조직확대를 위하여 비조합원의 조합가입 간담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해마다 20%의 조합원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96년 현재 184개 업체의 조합원과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에 연연치 않고 건전한 발전으로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수시로 좌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피력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그는 “95년 2월에 단체표준 규격 촉진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여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한 후 조합원에게 의견수렴과 작업공정 개

선, 수요처 작업성 시험검사를 걸쳐 95년 9월 제2차 단체표준 규격 심의회에서 규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를 수요처에 검토·요청한바 일부 수정하여 95년 12월에 최종 검사결과 통보되어 96년 3월 중소기업청에 담배 포장용 골판지상자 84mm 연갑연포의 14개 품목에 대하여 단체표준 규격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단체표준규격 제정에 따른 제품의 신뢰성 및 규격통일에 따른 다수 업체 동시 참여가능과 계획생산 추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단체품질 인증제 추진에 따른 조합 검사기능 활성화 및 내실화와 수요처 품질보호에 힘을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그는 3가지의 말을 남겼다.

“지도자의 가장 어려움은 ‘고독’입니다. 이 고독을 이기기 위해 지도자는 항상 인내력을 갖고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요즈음 젊은이들은 자본주의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도는 물질의 만능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면으로 흐르는 것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정보가 어느덧 창간 3주년을 맞이했는데, 일단 축하드리며 바라고 싶은 것은 다른 매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겸허히 받아 들여 포장업계의 정확한 진단과 폭넓은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K]

변준섭 기자